

##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반한 건전한 공동체를 위하여

| 차흥도 목사, 농촌선교훈련원 | 지금여기 편집부 |

지난 98년 미내사는 국내에 처음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하여 실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 관공서와 시민단체에서 많은 시도를 하여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이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당시 서초구와 송파구청, 광명과 청주시청에서도 실시하는 등 한동안 활발했던 것이 현재는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이 충북 음성읍을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 활기를 띠 것으로 보여 그 활동 중심에 있는 차흥도 목사를 만나 인터뷰하였습니다. 현재 충북 음성에서는 음성사랑 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지역화폐의 일종인 이 병행화폐가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음성군 공무원의 급여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공무원 중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의 10%를 이 병행화폐로 받게 하고 그것을 음성 지역 내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

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확대하여 관공서와 시민단체, 지역원로들이 힘을 합쳐 활성화하려는 준비모임이 음성에서 조직중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화폐는 지역에서만 쓰여질 수밖에 없으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며, 더욱이 새로이 시작될 이 화폐는 그 사용기한을 1달이나 2달로 규정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폐기하게 함으로써 화폐순환이 빨라지도록 하는 등의 새로운 시스템을 추가할 계획이라 합니다. 관심있는 지역의 단체장들과 시민단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문의 : 02-747-2261).

앞으로 이 음성사랑 상품권을 아래와 같이 사용할 것과 보급확대를 고려하고 의논 중이라고 합니다.

- 교사들과 군인들에게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름을 '음성화폐' 등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
- 농협 등에서 따로 발행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모두 이것으로 통일.
- 유통기한을 둠(처음엔 90일로 시작하고 점차 줄여 30일까지).
- 지금의 10%를 가급적 20%까지.
- 지역 내 약 1500~1800개 정도 되는 기업 및 공장 임직원들의 월급도 최소 10%를 지역화폐로 지급.
- 일부는 바로 환전되고 있다는데 이것은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
-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편하다는 점과 교육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 지역 내 모든 점포에서/택시까지 이것을 사용하도록 독려해야 함.  
(이것을 많이 사용하는 점포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어야 함)
- 우리가 왜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리고 홍보/교육해야 함.

**미내사** 반갑습니다. 목사님과는 지난 98년 저희가 지역통화를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져왔습니다만, 실제 지역순환사회를 주제로 이야기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차흥도** 그렇군요. 우리 전통의 품앗이를 좀더 현대화하고, 지역 내 실물거래를 견실히 하며 인간적인 유대감을 높이는 지역화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역통화 초기에 아현동 농도생협 매장에 미내사 회원들이 다녀간 것이 생각납니다.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대한 희망과 기쁨이 있었지요.

**미내사** 지역화폐가 공공의 신뢰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면 앞으로도 모든 곳에서 참여할 여지는 많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정부나 음성군에서 이것을 쓰겠다고 한다면 지역 내의 다른 단체나 기업, 상점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농협이나 각 사업체들 각자의 범위 안에서만 사용되던 것을 연합하여 하나로 통일하는 것도 지역전체를 위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며, 참여자의 수가 많으니 더 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를 바탕으로 한 음성의 지역순환사회 활성화 움직임이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실제로 해나갈 수 있도록 세세한 계획이라던가,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등을 미리 예측해 준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해본 사례가 있다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구요.

**차흥도** 그렇습니다. 다만 시작은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로 시작했다가 점차 규모의 경제로 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는 안되겠다는 점도 늘 상기해야겠지요. 서울 마포의 모생협도, 처음에는 ‘마포도 너무 넓다, 지역 중심으로 마포 북부만 하겠다’라고 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름도 바뀌고 마포 전체와 그 일대 및 다른 곳까지 커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규모를 확대시

켰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조그맣게 할 때는 재미가 있고 가치가 있었는데 규모 확대에 초점을 맞추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생동감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우리나라 생협은 농업기반을 만드는 생명운동부터 시작했는데 일본 생협은 소비자운동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생협은 일본에 비해 굉장히 작은 것인데 생협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규모의 경제와 같은 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생협이 우리 한국의 농업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농업은 가족농 중심의 농업이었는데 가족농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들 입장에서는 물류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해요. 한번 차가 들어가면 차에 생산물이 가득 채워져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폐해가 많은 지금의 시스템과 크게 다를 것이 없지요.

처음 지역화폐 하면서 느낀 것은 이것이 생협과 연결되면 제일 좋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공동체운동이 되겠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점차 그런 식의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전의 한발레츠가 민들레 의료생협을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미내사** 네. 민들레 의료생협은 상당히 견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소식을 받아보면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나거든요. 그런데, 지역화폐가 음성군 전체에서 쓰인다고 하면 일전에 저희가 초청해 강의를 들었던 미국의 게인스빌아워(Gainsville hours)와 같이 되기가 쉬운 것 같은데요. 게인스빌아워 시스템에서는 우리처럼 컴퓨터 계정을 쓰지 않고 종이화폐를 만들어서 직접 배포합니다. 그런데 운영자인 샤틀리 바니에 의하면 이 돈이 어디서 얼마가 쓰이는지를 모른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통계가 안나오고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

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으니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차흥도** 지역화폐 발행량만 나오겠지요. 화폐 발행량 나오고 매달 다시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이 잡히고요.

**미내사** 네. 어쨌든 잘 되어가는 것 같으냐고 물으니, 화폐의 움직임을 알 수 없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음성통화는 한달 안에 다 쓰라는 규칙을 적용할 것이라 하니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만.

**차흥도** 지금은 음성사랑 상품권도 아직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그 기한이 없지요. 사용기한이 없으면 장롱 속에 보관만 되어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기한을 주자는 것이예요. 처음에 3개월 90일로 주고 한 일 년 지나가면 60일로 바꾸고 또 1년 지나가면 30일로 하여, 30일을 맥시멈으로 하자는 계획이지요.

**미내사** 그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란 돌고 돌아야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한곳에 정체되어 있다면 의미가 없겠지요. 그렇더라도 쓸 데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기한을 주어도 그 안에 못쓰는 일이 생기겠지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군요.

**차흥도** 못쓸 때는 다시 현금으로 상환해 가야겠지요.

**미내사** 다른 한 가지 방안이 있다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기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즉 기부하면 그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존경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역화폐를 많이 쌓아 봐야 이자도 붙지 않으니 써야겠는데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화폐를 사용할 곳이 별로 없을 경우가 생기겠지요. 이때 그것을 기부로 돌

리면 돈도 들고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에게 도움도 되니 좋을 것입니다. 거기다 몇 달 안에 의미 없는 곳에 써야 하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니 또한 좋은 일이구요. 그런 돈을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여 다른 서비스를 받도록 하면 자원봉사 보다 더한 도움을 주는 것이 되겠지요. 노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요양보호를 받고, 그래서 그 돈을 그렇게 쓴 것에 대한 어떤 감사와 존경을 그분들에게 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겠지요. 옛날에 부자가 존경받은 이유가 돈을 가진 만큼 또한 지역사회에 풀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차홍도** 좋네요. 그렇게 기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 년에 한 번씩 지역단위로 상을 주고 감사를 표하는 날을 만들 수도 있겠지요.

**미내사**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처음에 이것이 잘 움직이려면 농협과 같은 실물거래를 하는 단체와 신뢰의 주축인 관공서가 주체가 되면 빠르게 확산될 것 같습니다. 저희 경험으로 볼 때 그렇게 운영 주체는 믿을 만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화폐를 다른 곳에서는 못쓰더라도 농협에서는 최소한 쓸 수 있게 될테니까요. 그리고 관공서 같은 경우엔 지방세 같은 세금 중 10% 정도를 이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해주면 좀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차홍도** 그렇습니다. 많은 아이디어와 실천이 뒤따라야 하겠지요.

**미내사** 그런데 사용기한을 정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차홍도** 예를 들어, 음성군의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공급 받는 사람들의 생활비의 10%에서 20%가 30일 내에너지역 안에서 순환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돈의 규모가 얼마나 크겠어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

지 않겠어요?

**미내사**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자꾸 경제가 위축된다는 것은 들어오는 돈은 없고 물가는 올라가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차흥도** 음성이 이상하게 물가가 비싸요. 그래서 집안의 큰일을 볼 때는 장을 봐도 충주나 청주에 가서 장을 봐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차비가 나오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미내사** 그러니까 자꾸 음성의 경제는 위축되겠네요.

**차흥도** 그렇지요. 그러니 음성에서 생산되는 먹을거리가 지역에서 순환되게 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생기가 돌겠지요.

**미내사** 먹을거리가 지역에서 순환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차흥도** 농협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지역의 규모 있는 마트에 음성 지역의 농산물이 상품으로 올라가게 해놓는 것입니다.

**미내사** 현재는 음성 농산물이 올라가있지 않나요?

**차흥도**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밖에 안됩니다. 쌀과 같은 몇 가지 뿐이지요. 그 외엔 다 다른 곳에서 들어옵니다. 음성에서 하는 절인배 추운동도 농협에서 괴산에 위탁을 해요.

**미내사** 왜 그렇습니까?

**차흥도** 가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겠지요.

**미내사** 그러니까 지역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군요?

**차흥도** 그렇지요. 농협 하나로마트도 조합원이 다 음성농민들 아녜요? 그런데 조합원의 물건이 여기 안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농협 하나로마트에 음성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올라오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라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산자들과 협의를 하자고 말해놓고 있습니다. 협의체제가

실제 '지역순환제'라는 개념으로 보면 전 세계가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다 종합해서  
상호연결망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협의체도 만들고…

**미내사** 그러니까 농협이 생산자와 직접 협의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군요.  
요.

**차흥도** 그렇지요. 농협과 마트의 일을 대행하는 협의체이지요. 지역  
에는 친환경 조직이나 농민회 조직이 있잖아요, 또는 후계자 조직도  
있고. 이런 조직들을 연합해 하나로 만들어 꾸려나가고, 또 하나는 식  
당들에 “우리는 음성산 배추를 씁니다, 음성산 돼지고기를 사용합니  
다”라고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트진 음식점이건 간에  
너지역의 농산물을 취급하는 양만큼 지자체가 뭔가 인센티브를 주도  
록 하자는 것입니다.

**미내사**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까요?

**차흥도** 구상해보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령 지방정  
부 세금의 일부를 감해줄 수도 있겠지요. 이 움직임을 통해 지역경제  
가 활성화 되면 실제 활성화된 만큼 세금이 또 들어올 테니까요. 그 다  
음으로 시급한 것이 친환경급식 문제입니다. 앞으로 학교가 전면 무상  
급식이 되면 현재로서는 지역의 친환경 물건이 모자라서 지역 것을 쓸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미내사** 지역의 학교급식도 모두 다른 곳에서 오고 있군요.

**차흥도** 그렇지요. 지금 쌀 이외에는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도 모릅니  
다. 어쨌건 학교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지역의 친환경 생산  
물로는 모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에 대비하여 해결해나가고,

만일 학교급식이 무상급식, 친환경 급식으로 되면 지역의 친환경 재배가 훨씬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로 공급이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병원이 친환경으로 가야 되고, 또 군대급식도 바꾸고, 그다음에너지지역기업 등으로 나가야겠지요. 그런데 기업은 어차피 이윤을 추구하니까 기업은 A급이 아닌 B급, C급으로 급식을 바꿔나가고…

**미내사** 어쨌든 공공급식만이라도 지역 내의 농산물로 바꾸자는 것이군요.

**차흥도** 그렇지요. 그것만 해도 지역의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지요. 농산물 중 어떤 것이 모자라는지 파악해 그것을 지역에서 재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음성농협 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것이에요. 어차피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애쓰고 있으니 분명 실시될 것인데, 이것이 언제 전면적으로 실시되느냐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올해나 내년에 실시되느냐 아니면 내후년에 실시되느냐의 문제인데 빨리 채소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농민들이 갖춰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법으로 되어 있어도 다른 지역에서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생산기반이 없으면 안되니까 작목반을 꾸려달라는 것이 농협의 요구예요. 안 그러면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요.

**미내사**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차흥도** 농민들은 일이 갑자기 밀려들어오니까 좋긴 한데, 채소는 손이 많이 가거든요. 벼농사는 일 년에 세 번 정도만 힘쓰면 되고 물관리만 하면 되니까 쉬워요. 그런데 채소는 매일 나가서 풀 뽑아줘야 되고 다 따서 공급해야 되고, 많이 먹지도 않기 때문에 소량 포장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일이 많으니까 잘 안하려고 하지요. 농민들은 차라리 가공

을 하려고 해요.

**미내사** 어떤 가공입니까?

**차흥도** 된장, 고추장 같은 것이 1차 가공이잖아요, 그다음 절임 같은 것으로 나가고 또 초절임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오래 뒤도 괜찮으니까요.

**미내사** 그렇다면 채소에 대한 방안은 뭐예요?

**차흥도** 논의들을 해야지요.

**미내사** 힘들어서 안한다면서요?

**차흥도** 힘들긴 하지만 판로가 보장이 되어 있어 소위 계획 생산을 할 수 있잖아요. 판로만 있으면 농민들은 합니다. 물론 농사라는 것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시군 중에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것은 가공과 유통을 할 수 있도록 가족 농에게도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각 군의 군수 인증제지요. 우리나라는 가공을 하려면 규모가 있어야 되게 되어 있어요. 일정한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가공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농민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잼 같은 것은 농민들도 솔단지 하나 놓고 가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법으로 못하게 해놓았어요.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군수가 도장을 찍어줘서, 외지로 나가는 것은 안된다 해도, 지역 내 급식이나 마트에 갈 수 있는 것들은 허락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봐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지역에 있는 군소 가게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지역의 대형마트는 지역에서 돈을 벌어서 서울로 가져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군소상인들은 자기들이 번 돈으로 거의 다 이 지역에서 쓸 테니까 지역경제는 활성화되겠

지요. 단위농협과 우체국이 다른 것과 같아요. 우체국은 돈이 중앙으로 올라가고 단위농협은 돈이 그 지역 내에서 쓰인다는 것입니다.

**미내사** 왜 그렇습니까?

**차흥도** 농협은 두 가지 구조가 있어요. 중앙회 조직이 있고 단위농협 조직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앙회와 각 시군단위로 있는 지부 농협이 있지요. 여기는 또 면 단위, 읍 단위마다 단위농협이 따로 있어요.

**미내사** 단위농협으로 들어온 돈은 그 안에서만 쓰이게 되어 있어요?

**차흥도** 필요하면 밖으로도 나가지만 단위농협의 주 활동무대가 지역 일 수밖에 없는 것이, 외지 나가서 활동할 사업이 있다면 모를까, 외지는 또 거기 단위농협이 있고 중앙회 지부가 있으니까 우리 단위농협이 나갈 일은 없는 것이지요.

**미내사** 이 모든 것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문제가 정말 기본적인데요.

**차흥도**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사용하려는 시스템 중 하나가 지역화폐예요.

**미내사**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지역을 살리자는 것이군요.

**차흥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되면 점차 문화도 지역문화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마다 소위 예술회관이라고 문화회관이 다 건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가수나 사람들이 순회공연 다닐 때마다 이곳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소위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보자는 것입니다. 수준의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겠지만, 지역 예술인의 공간과 그들의 활동을 활성화 시켜주는 것들도 다양한 형태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끄끙대며 왜 우리는 공간도 없냐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

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너지역화페도 쓸 수 있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는 세계적으로 하고, 실천은 지역에서 하자”. 어차피 실천은 지역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세계적인 문제들을 어디서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건 지역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내사** 이 생각은 이상적이고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눈앞에 닥친 것을 따져볼 때는 그것보다 당장 한 푼 더 버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차홍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실제 ‘지역순환제’라는 개념으로 보면 전 세계가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혀 없는 흐름이 아니에요. 그런 움직임을 다 종합해서 상호연결망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먼저, 음성은 5일장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5일장에 나오는 상인들은 대개가 다 외지 상인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음성 고추 코너가 있거든요? 음성 고추 생산자들이 나와서 파는 코너입니다. 그것처럼 음성농민 코너를 따로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사람들이 저기서 사는 것은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것이라는 점을 알도록 하고 또 신뢰할 수 있도록 코너를 따로 내주자는 것입니다. 지역상인들은 있는데 그들의 농산물을 팔 자리가 없어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더욱이 지금은 그 상인이 지역주민인지 외지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최소한 음성상품임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사고 안 사고는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지역 소비자운동을 벌여줘야 되고요.

**미내사** 말씀을 들어보니 지역공동체 전체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을 모두 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고 커서 한발 한발 나아갈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모두 짜여져 한 번에

돌아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기엔 너무 힘든 것 같고 그 중 한 가지를 활성화시켜 조금씩 전체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려면 지금 지역화폐와 병행화폐를 어떻게 내실 있게 성공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하겠네요.

**차흥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가려면 지역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다음 지역순환사회를 위한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로드맵에 따라 나가자는 거예요.

**미내사** 그러려면 사실 농도생협처럼 음성군 내에 자치생협 같은 조직이 생기는 게 오히려 빠를 수도 있겠네요?

**차흥도** 가격과 물류의 문제인데 그것은 지역의 생산자들과 일정부분 협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내사** 현재 생산자들이 좋은 가격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차흥도** 그렇죠. 생산자들은 중간 상인들에게 발떼기로 넘기니까요. 그 정도 가격은 직접 연결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자체가 가운데서 주선하도록 하거나 협의체가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내사**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음성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생산물의 양과 소비의 양을 파악한 후 철저하게 계획하고 시작해야겠군요.

**차흥도** 그래서 관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일이 많아지니까요. 민과 관이 같이 가야 됩니다. 또 같이 공부해나가야 합니다. 더 효율적이고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말입니다. 이미 음성은 5일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충남 서천의 어느 읍에 가보니까, 거기서는 자기네 읍마당에 장터를 한 달에 한번인가 열어 자체 지역 주민의 물건만을 갖고 나오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로마트 앞에 그런 장터를 만들면 되지요.

제가 일본에서 배운 것인데 마트 앞에 그늘막을 씌워놓고 지역농민

들이 각자 자기 물건을 가지고 와서 가격을 붙여놓게 합니다. 그러면 마트에서 팔리는 것을 계산해주고 안팔리는 것은 다시 가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굳이 지방정부가 하지 않아도 되지요.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더군요. 가격표를 붙여 놓고 갔다가 저녁에 와서 팔린 것은 계산해서 받고, 덜 팔린 것은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가격을 다운시켜 붙여놓고 갑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대가 유지되지요. 농협은 장터를 열어주되 판매는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계산은 해주지요.

**미내사** 자릿세는 안 받으시니까?

**차흥도** 안 받지요. 이미 농협 조합장이 우리 지역순환사회 모임 본부장이 됐으니까, 그런 것도 음성에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미내사** 농협, 공무원, 생산자, 생산자 협의체의 장들도 들어와야겠네요.

**차흥도** 그렇습니다.

**미내사** 그다음 작은 가게들이나 상점들의 협의체 장들도...

**차흥도** 제일 중요한 것은 로드맵을 세우고 그 로드맵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육 홍보입니다. 지역순환사회를 위해 지역의 힘을 한번 모아보자, 이 기운을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있지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멍치고, 생산자들이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하는 기운들이 멍쳐야 가능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이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역 화폐를 우선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음성의 농정과장과 기술센터 소장이 우리 모임에 운영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 교육홍보사업계획을 반영시키도록 하려 합니다. 소비자교육도 하고, 지역의 여론도 형성시키고, 농정과는 생산자들 교육할 수 있도

록 하고...

**미내사** 마스크에도 널리 알려야겠네요.

**차흥도** 그렇지요. 이미 지역신문 대표도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미내사** 구성은 잘 이루어져있군요.

**차흥도** 그렇습니다. 군 의원과 단위 조합장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다양한 사례나 이론들을 공부해 나가야 하고 외국과 국내의 여러 사례를 찾아 공부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전파하는 교육 시스템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되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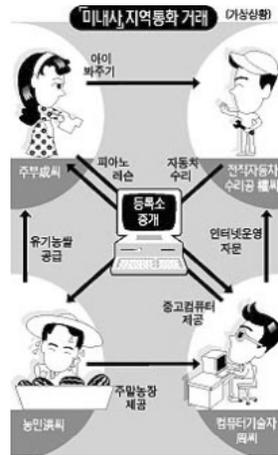
**미내사** 지역경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훌륭한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각 지자체에서도 배워갈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겠군요. 앞으로 뜻하시는 일이 모두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차흥도** 감사합니다. (끝) 

※ 다음 페이지는 미내사 지역통화가 처음 시작될 때 마스크에 소개된 일부 자료입니다.

[지역통화운동 레츠 상륙] “애 봐주고 차 수리 받아요.”

전 세계적으로 선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지역통화 운동(일명 레츠·Local Exchange & Trading System)’이 한국에도 상륙했다. 특히 IMF고실업시대를 맞아 환경단체들이 일자리의 창출과 지역사회의 연대감 강화수단으로 이 운동에 뛰어들고 있다. 지역통화 운동이란 올해 들어 민간단체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녹색가게’를 확대시킨 개념. 가입회원들이 갖고 있는 특정한 기술이나 노동력, 상품 등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국내 최초로 지난 3월부터 지역통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미래사(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02-724-2261~2)’ 모임은 현재 60여 명의 회원들로부터 등록을 받아 각종 서비스와 물품의 교환거래



를 성사시키고 있다. 거래되고 있는 서비스들은 우편물 발송 등 단순노동과 행사 도우미, 비디오 촬영편집, 외국어 번역업무, 인터넷 정보검색, 컴퓨터 기술 자문 등. 미래사 총무 이원규(37) 씨는 “자동차 보수, 피아노 레슨, 법률 자문, 배관작업, 집안청소, 아기 봐주기 등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는 무궁무진하다”면서 “회원 기반이 넓혀지면 교환서비스가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지구환경연구소의 황진택 박사는 “임시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실업자나 여유 있는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거래의 마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래사에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사는 실업자 김모 씨, 주문이 줄어들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건물 외벽 및 유리창 청소 전문 권모(33) 씨, 가게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는 전 일여강사 김 모(주부)씨 등 일거리를 찾는 회원들이 자신의 서비스에 값을 매겨 등록시켜놓고 거래하고 있다. 거래는 ‘fm(미래 통화·future money)’이라고 이름붙인 가상의 지역통화를 매개로 해서 이뤄지고 있으며, 외벽유리창 청소를 하는 권씨처럼 ‘하루 일당을 fm 6만원과 현금 9만원으로 받는다’고 현금통화와 지역통화를 결합한 경우도 있다. 경기도 부천에서 피노키오 유치원을 하는 송근중(40)씨도 “유치원이 문을 닫는 토요일과 일요일 25인승 버스를 기사와 함께 대여해주고 12만원을 받는데 그중 6만원은 기를 구입을 위해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6만원은 fm으로 받는다”고 말했다. ‘미래사’의 지역통화 시스템이 알려지면서 녹색연합과 불교환경교육원 등 환경단체들이 독자적인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산하 단체인 ‘새문명 아카데미’는 실업자와 일자리를 연결시켜주는 목적의 지역통화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으며, 부산의 한 살림회도 부산을 권역으로 하는 지역통화를 구상하고 있다.

[현대판 두레]

## 품 앓 이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사는 주혜명(33) 씨는 지난달 현금 15만원을 들여 집 안에 낡은 조명기구와 전기시설을 새것으로 교체했다. 전기 기사가 이를 동안 맡아서 한 일이었지만 주씨는 재료비(15만원)만 주고 인건비는 ‘고맙다’는 인사말로 대신했다. 그렇다면 진정 주씨는 공짜로 전기공사를 한 것일까. 법률적으로 거래된 돈은 아니지만 이들만의 ‘돈’은 오고 갔다. 우리의 전통풍습인 ‘두레’나 ‘품앗이’를 현대판으로 개조한 ‘지역통화시스템’이라는 신용화폐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를 도입하는 시민단체나 지자체 직장이 늘면서 이용자들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 지난 1998년 3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미내사)’이 회원 6백여 명으로 국내 첫 선을 보인 이래 서울, 인천, 대구지역에서 20여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지역통화시스템이란 신용을 바탕으로 서비스나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현금 대신 일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일종의 ‘신용화폐’. 이 시스템에 가입한 회원들은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다른 회원들에게 제공하거나 받을 때마다 자신의 계좌에서 신용화폐의 잔고가 쌓이거나 빠져 나간다. 처음 회원이 되어 다른 회원에게 서비스, 물품을 받기만 한다면 그만큼 다른 회원들에게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해야 할 채무가 늘어나는 셈. 그렇다고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자신이 받은 것만큼 돌려주려면 자신이 당초 제공하려던 기술이 아닌 단순 육체노동으로라도 대신할 수 있다. 미내사 이원구 사무국장은 “아직 많은 회원들이 돈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해 서비스를 받기보다는 제공하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지역통화시스템을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나 물품은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이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단지 아직까지는 시스템끼리 다중거래가 형성돼 있지 않아 해당 시스템에 가입한 사람들끼리 일이나 물건을 주고받는 데 그치고 있다. 신용화폐의 이름이나 운영방식도 시스템별로 차이가 있다. 미내사의 경우 fm(future money)이란 신용화폐로 유기재배 농산물까지 구입할 수 있다. 아이들 돌보기, 제주도 민박, 인테리어 상담 등 매월 발행되는 소식지에 웬만한 서비스는 거의 총망라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송파 품앗이’라는 제도를 운영해 온 서울 송파구는 회원들 간에 컴퓨터 수리, 인터넷 교육, 미용, 피아노 레슨, 영어 번역 등을 송파머니(SM)로 주고받고 있다. 지역통화시스템에 가입하려면 시스템별로 자격조건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나 대다수 자격제한은 없다. 회원 등록비를 받는 곳도 있으나 많아야 1만원. 소식지 발행과 시스템운영 경비로 쓰이는 데 부족할 편. 그래서 시스템 본부가 시민단체나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지역통화시스템은 1983년 캐나다 밴쿠버 코록스밸리에서 마이클 리튼이 창안한 레츠시스템(LETS: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이 효시. 지금은 세계 각국으로 확산돼 현재 영국, 뉴질랜드, 미국, 일본 등지에 1천여 개 지역통화시스템이 가동 중이다.

글쓴이: 유지상